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. 28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노르웨이, '2011 폭탄·총격테러' 범인 가석방 신청
  - 1.18 노르웨이 최악의 테러사건\*을 자행해 조건부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「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」가 요건 충족(10년 복역) 후 가석방을 청구해 심사가 진행중이나, 기각될 것으로 전망
  - \* '11.7.22 오슬로의 정부청사 인근에서 폭탄 폭발(8명 사망·209명 부상), 2시간 후 우퇴위아섬의 노동당 청소년캠프 행사장에서 소총 난사(69명 사망·110명 부상)
- 英 정보기관, 텍사스 유대교 예배당 인질범 “관심대상” 제외
  - 1.18 英 정보기관은 ‘美 텍사스주 유대교 예배당 인질극’ 범인을 지난 '20년 ‘관심대상’으로 관리하다 1년 후 제외하였고,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同人이 '21.12월 미국에 제지 없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
  - \* 同人은 미국 입국후 거리에서 총기를 구입하고 노숙인 쉼터에서 지내오다 지난 1.15 유대교 예배당에 들어가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다 사살

#### 미주

- 멕시코, 갱단(카르텔)간 세력 분쟁에 ‘드론’ 활용
  - 1.19 언론은 최근 갱단 ‘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(CJNS\*)’이 조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‘드론’이 미초아칸주 지역의 갱단 ‘카르텔레스 유니도스’를 공격하는 등 관련 기술의 악용이 급진전 중이라고 보도
  - \* '19년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멕시코 정부 요청으로 중단
- 美 해군, 이란發 선박에서 ‘폭발물 재료’ 40톤 압수
  - 1.23 美 중부사령부 5함대(중동 담당)는 오만海 인근에서 이란에서 예멘으로 향하던 국적불명 선박\*에서 폭발물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‘요소 비료’ 40톤을 압수하고 테러 목적 연관성 등을 파악 중
  - \* ‘다우선’으로 불리는 아랍 전통 범선으로, 마약 밀매·무기 운송 등에 자주 사용

## 중동

- 아랍 연합군, 예멘 후티 叛軍지역 대상 공습으로 260여명 사상
  - 1.21 언론은 사우디 주도 아랍 연합군이 후티叛軍이 장악중인 예멘 북부를 공습하여 6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, 특히 사다지역의 임시 수용소에 폭탄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보도
  - \* 「한스 그룬베르그」 UN 예멘특사는 연합군과 후티 叛軍간 무력 격화에 우려 표명 및 자제 호소

## 아·태평양

- 탈레반, 국제사회에 정부 승인 촉구
  - 1.19 「아쿤드」 탈레반 총리는 카불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“탈레반은 정권 인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”라며 각국 정부, 특히, 이슬람 국가에서부터 앞장서 자신들의 정부를 공식 인정해줄 것 촉구
  - \* 현재, 「아쿤드」 총리 등 탈레반 고위급 일부는 유엔 제재 대상이며, 국제사회는 同 조직이 인권 침해와 폭력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로 미승인 中
- 파키스탄, 테러 추정 폭발로 3명 사망·20여명 부상
  - 1.20 파키스탄 경찰은 당일 편잡州 州都 라호르市 소재 상점 밀집 거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(3명 사망·20명 이상 부상)를 테러사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
  - \* 또한 경찰은 초동 수사 결과,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한폭탄을 폭발원인으로 추정

## 아프리카

- 소말리아軍, 알샤바브 테러리스트 6명 사살
  - 1.23 소말리아軍은 이날 중부 갈구두드 지역 구리엘 마을에서 대테러 작전을 전개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 조직원 6명을 사살하는 한편,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을 제압하여 폭탄테러를 저지했다고 발표
  - \* 한편 알샤바브가 정부軍의 同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

아프간, 국제 아동구호단체 겨냥 자폭·총격 테러

- '18.1.24. 오전 9시경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州 州都 잘랄라바드 소재 '세이브더칠드런(Save the Children)\*' 사무소를 겨냥한 자폭·총격 테러가 발생, 군인·경비원·민간인 등 6명 사망·26명 부상
  - \* 1919년 창설된 국제아동구호 NGO로 아동보호·보건영양 분야 등 다양한 사업 진행
  - 폭탄조끼를 착용하고 총과 유탄발사기로 무장한 테러범들은 '세이브더칠드런' 사무소 상주 건물 앞에서 우선 자살 차량 폭과 공격 자행
  - 이후, 출입로 확보를 위해 유탄발사기로 건물 입구를 파괴하고 '세이브더칠드런' 사무실로 난입, 10시간 동안 경찰과 총격전 전개
  - \* 경찰은 테러범 4명을 사살했으며, '세이브 더 칠드런' 직원 46명을 구출했다고 발표
- ISIS는 자체 선전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同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며, "아프간 內 정부기관은 물론 영국과 스웨덴 소속 단체들에 대해서도 오늘과 같은 공격을 지속하겠다"고 주장
- 同 사건과 관련해, 유엔 아프간지원단(UNAMA)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, "민간인이나 구호단체를 겨냥한 테러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"이라며 ISIS를 비난
- 한편, '세이브더칠드런'은 "아프가니스탄 주재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고 구호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며,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업무를 재개할 것"이라고 발표

< 오사마 빈 라덴(Osama Bin Laden, 1957~2011) >

- 부유한 사우디 사업가 「무함마드 빈 라덴」의 아들로, 사우디 '킹 압둘 아지즈大' 재학 中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하였고, '81년 아프간 對蘇항전 가담
- '88년 알카에다를 결성, △ 駐케냐·탄자니아 美 대사관 폭탄테러('98.8) △ 예멘 아덴항 美구축함 테러('00.10) △ 9.11테러('01.9) 사건 등을 배후 조종
- 9.11테러 이후 파키스탄 케이벌파크툰과州 아보타바드에서 은신하던 中 美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('11.5, Operation Neptune Spear)